

말산업 관광·레저 연계

익산시, 공공승마장 연계 프로그램 개발… 전국대회 유치

말산업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익산시가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 승마장과 연계한 관광레저 문화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지속적으로 레저 인프라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키를 모두 잡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올해 초 3만9,061㎡ 규모의 공공승마장 조성을 완료하고 운영을 본격화했다. 약 79억원이 투입된 공공승마장은 실내·외마장·원형마장, 마사, 워킹마신 등의 시설을 갖췄다.

말 17마리와 함께 교관이 상주해 있으며 어린이·청소년 일부인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별 다양한 강습과 승



마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하반기에도 말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자원과 승마 스포츠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우선 용안 거대역세단지 약 15km의 승마길 조성이 미루리데 천혜의 자연 경관을 즐기며 승마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현실을 활용해

다양한 승마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VR 말산업체험관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항 중이다.

포니랜드 체험관도 함께 건립된다. 포니랜드 체험장은 먹이주기 체험장과 포니승마 체험길, 포토존 등으로 구성되며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역관광지원과 승마 스포츠를 연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프로그램 육성 계획을 수립해 관광과 경제 활성화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방침이다.

이밖에도 승마 대중화를 위해 전국 승마대회와 유소년 승마대회, 구주력 대회 등 5차례에 걸쳐 승마대회를 개최해 말산업 도시 익산을 전국에 알릴 예정이다. /익산=이재준 기자



군산시평생학습관은 2022년 디지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오는 8월 8일부터 8월 20일 까지 주2회 3주 과정으로 운영한다.

‘내 손안에 있는 디지털 혁명’

군산시평생학습관, 디지털 학습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군산시평생학습관은 2022년 디지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오는 8월 8일부터 8월 20일 까지 주2회 3주 과정으로 운영한다.

디지털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시민들이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강좌는 아래에서 드로우로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을 배울 수 있는 ‘항공 드론 활용’, 쉽게 배울 수 있는 ‘인공지능 코딩(Pay with AI)’, 내가 만든 가상현실을 통해 VR환경을 쓰고 체험하는 ‘증강(AR)·가상(VR)현실과 코딩의 만남’, 배너·유튜브 챔네일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미리캔버스웹디자인’, 손쉽게 내가 필요한 어플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앱만들기(인인벤터)’, 세상의 하나님인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디지털 일러스트(캐릭터 제작)’ 등 6개 강좌 70명의 수강생이 참여하며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 시민들이 관심이 증가되고 있어서 강좌를 운영하게 되었다.

김종필 교육지원과장은 “미래지향적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와 학습의 기회를 밝힐 예정이다”며 “같은 기간에 펼쳐지는 전국하암스포츠제전(8/12~8/15)과 함께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29일 18시까지 신착순 온라인 접수를 통해 모집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28일 9시~18시까지는 방문접수(신분증·지참)를 실시한다. 수강료는 1만원이고, 재료비는 별도이며 강의계획사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장소는 군산시평생학습관 및 콘텐츠팩토리(금암동 소재)의 편집 스튜디오와 pc 교육실의 최신 기기체를 활용해 수강생의 프로그램 만족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작년부터 시행되었던 디지털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12개 강좌 12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으며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 시민들이 관심이 증가되고 있어서 강좌를 운영하게 되었다. 김종필 교육지원과장은 “미래지향적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와 학습의 기회를 밝힐 예정이다”며 “같은 기간에 펼쳐지는 전국하암스포츠제전(8/12~8/15)과 함께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 구시장, 다 되는 서비스·ESG경영 도약

익산 구시장이 ‘다 되는 고객선회서비스’와 ‘가치와 나눔’을 추구하는 ESG경영을 도입하며 전통시장에 협력을 불어넣는다. 이는 22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익산 구시장 첫걸음 조성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익산 구시장은 익산종합운동장 서문 소상공인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dovetal@koreakr)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업내용은 시청 소상공인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군산=이재준 기자

에게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상인들은 구시장 일대 상가를 돌며 고객들에게 ‘다다익선 2.0캠페인’을 알렸다. 또한 전통시장 성공방안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 내용은 모바일 결제 수단의 추가 도입을 통한 ‘다’받아주는 시장·원산지 및 가격표시 ‘다’지키는 시장·깨끗하고 청결해서 고객에게 ‘유’익’한 시장·상품권이 “선”하게 유통되는 시장·ESG경영 실천을 통한 ‘가치 그리고 나눔’이라는 다섯 가지 항목의 실천을 위한 서약식 및 웹페이지로 진행됐다. /군산=이재준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폐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48회를 12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마감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주요업무보고·청취·간담회·현장방문·군산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원안가결로 의결했다.

특히 14일부터 4일간은 집행부로부터 2022년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올바른 시정방향과 현안 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20일 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9명을 선임하고 서동수 의원(가선구)과 이연화 의원(비례대표)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통합방위태세

확립 화랑훈련 실시

익산시는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주민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2022년 화랑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4박 5일 동안 실시되며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익산시를 비롯해 제9586부대 3대대, 익산경찰서 등 지역 전 방위기관이 참여한다.

화랑훈련은 2년마다 시·도 단위로 실시되는 후방지역 종합훈련으로 전북관역은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실시된다. 올해 화랑훈련은 ‘지자체 중심의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목표로 전·평시 연계된 통합방위 작전계획 시행과 절차 과정의 숙달에 중점을 둔다.

이에 따라 시는 훈련기간 중 통합방위지원본부와 읍·면·동 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해 절차 숙달과 상황조치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주민들의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주민신고장을 운영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신고 홍보를 강화한다.

/군산=이재준 기자

‘제3회 섬의 날’ 행사 준비 총력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와 고군산군도 일원서 개최

제3회 섬의 날 행사가 ‘섬, 대한민국을 떠나다’라는 주제로 오는 8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와 고군산군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섬의 날’(매년 8월8일)은 섬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지정된 정부 기념일이다. 올해 3회째를 맞아 행정안전부·주최, 전라북도와 군산시 주관으로 행사를 펼치며, 8월 8일 GSCO에서 기념식을 시작으로 성대하게 막을 올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군산시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섬에 대한 주제관·정책관·홍보 전시관이 GSCO와 선유도 부대행사장에서 7일간 상시 운영되고, 고군산군도 섬들을 직접 관광·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쉽고 편하게 즐기고 참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브레이브걸스·진성 등이 출연하는 기념식 축하공연(8월8일)과 인기 케이팝 아이돌·가수들이 출연하는 특별 생방송 공연(8월10일)이 준비되어 있어 전 세대를 이우는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유도에서 펼쳐지는 불꽃·드론쇼(8월13일)는 고군산군도를 찾은 방문객들에서 한 여름밤의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섬발전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기관인 한국섬진흥원은 국제학술대회·청년자문단·아카데미·주한대

사 초청행사 등 학술행사와 섬주민이 함께하는 우수시례 발표회 등 섬 관계자들을 위한 자리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섬주민들이 노래 솜씨를 뽐내는 섬기왕대전(8월12일), 어린이들을 위한 동요대회와 그림그리기 대회가 준비되어 있으며, 섬 향토음식을 매일 맛볼 수 있는 프로그램과 리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각 섬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고, 직접 맛보고 구입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제3회 섬의 날 행사를 통해 국민 모두가 섬으로 위로받고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같은 기간에 펼쳐지는 전국하암스포츠제전(8/12~8/15)과 함께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큰 호응

익산시가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창업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100만원의 다이로움 정책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7월 현재 50개소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재창업에 나서 삶의 희망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선착순으로 지원대상 20개소를 추가 모집 중이다.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해야 한다. 세무사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전자상거래업 등 실제 별도 사업장 미운영자, 본사 직영체제 브랜드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신청은 익산종합운동장 서문 소상공인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dovetal@koreakr)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업내용은 시청 소상공인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군산=이재준 기자

